

▶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본선 진출작 21편 발표

# 작년에 이어 극영화 강세

극 20편 · 실험 1편... 모두 '월드프리미어' 작품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에 상영될 본선 진출작을 발표했다.

올해 한국단편경쟁은 916편의 한국단편경쟁 출품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지역영화 공모를 거쳐 선정된 작품 1편을 포함한 총 21편의 본선작을 선정했다.

'한국단편경쟁' 공모에는 지난해 748편 대비 123편이 증가해 871편이 응모하면서 18회 영화제가 세운 역대 최고 공모 편수 기록을 넘어섰다. 또 지역영화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신설된 '지역영화' 공모 역시 지난해 42편 보다 3편 증가한 45편을 기록했다.

올해 '한국단편경쟁' 무대에 오른 본선작

21편은 모두 세계 최초 공개되는 '월드프리미어'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선작은 극영화가 20편, 실험영화가 1편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극영화가 강세를 보였다.

'한국단편경쟁' 심사위원으로는 영화평론가 정지연·안시환·김소희가, '지역영화' 심사위원으로는 전북독립영화제 유순희 프로그래머와 영화감독 이상민·전주국제영화제 장병원 프로그래머가 참여했다.

예심위원단은 "출품작의 전반적인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된 해"였으며, "취업·학교·연애·가족 등을 다룬 영화들이 두루 포진한 가운데, 흥미로운 스타일 구성을 통해 이목을

사료잡은 영화나 배우의 연기력 및 주제의식에 대한 공감을 통해 본선작 선정에 이르렀다"고 심사배경을 설명했다.

총 21편의 한국단편경쟁 본선작은 다음과 같다.

#클라우드, 1520, 364일, 5월 14일, 곳에 따라 비, 김희선, 난류, 동아, 미나, 병훈의 하루, 빛나는 물체 따라가기, 선화의 근황, 시체들의 아침, 연희동, 인사3팀의 캡슐커피, 자유연기, 종말의 주행자, 착한 사람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컨테이너, 환불, 히스터리아 등.

이들 작품은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열리는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대상, 감독상, 심사위원특별상을 두고 경합을 벌인다.



알콩달콩 죄충우돌



수빈이와 친구들의 이야기

전주시 입주기업 올빼미하우스 제작 애니메이션 '수빈스토리 시즌2', JTBC 방영

전주에서 탄생한 애니메이션이 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된다.

전주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기업인 (유) 올빼미하우스가 개발한 TV시리즈 3D 애니메이션 '수빈스토리 시즌2'가 JTBC를 통해 방영된다고 6일 밝혔다.

3D 애니메이션 '수빈스토리'는 초록마을에서 벌어지는 수빈이와 동물 친구들의 알콩달콩 죄충우돌 이야기로 협동·이해·화해·배려 등의 교훈이 담겨 있다. MBC·애니원·애니박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방영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수빈스토리 시즌2'는 총 20부작으로 오는 24일까지

평일 오전 8시 30분,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영된다.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유)올빼미하우스는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3D 애니메이션·3D 모델링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 노하우를 가진 제작사로 최근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AR게임·어린이동영상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점에 박수를 보낸다"며 "문화콘텐츠 발굴 및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 전통문화전당 오태수 원장, 건강문제로 사의 표명

오태수 제2대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1월 말 취임했다.

(재)한국전통문화전당은 지난해 퇴근 후 귀가 도중 단독 발생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오 원장이 지난 5일 원장의 장기공백으로 인한 전당의 피해를 우려해 스스로 사임 결정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전당에 따르면 오 원장은 교통사고로 얼굴과 허리를 크게 다쳤고, 12주 입원치료와 3개월간의 장기요양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측



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 원장은 "치료 장기화로 인해 더 이상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당과 한지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리를 내놓게 되었다"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해왔다.

오 원장의 사의표명에 따라 전당은 당분간 송재명 사무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기는 2019년 1월 말까지다.

전당은 정관에 따라 60일 내에 제2대 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선임 원장은 이사장(전주 부시장)을 포함 7인의 심사위원회가 서류와 면접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최고득점자를 이사회가 의결하고 이사장 최종 의결로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 울 무형유산 신규 이수자 입문 교육

국립무형유산원은 차세대 핵심 전승자인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이수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2018 무형유산 신규 이수자 입문 교육(1기)'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새내기 이수자들이 무형유산 전승 우수사례를 직접 접하며 전승현장을 이해하고, 제도·정책·지식 재산권 등을 통한 전승자로서의 지식을 넓히는 등 전승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3월 1기를 시작으로 6월과 11월, 총 3기수(기수별 40명 내외)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다. 3월에 진행될 1기 교육은 무형문화재 제도와 정책 이해, 무형유산 예능분야(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이수자와 기능분야(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이수자와 함께하는 우수활동 사례, 정재국(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파리장악 및 대취타) 보유자와 대담을 통한 무형유산 전승세계 알기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대상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로 지정된 지 3년 차 이내의 신규 이수자이며, 모든 과정은 무료(식비·교통비 제외)로 운영한다.

교육신청은 9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정해은 기자

## 집대성된 톨스토이 문학 매혹적 뮤지컬로 만나다

안나 카레니나 소리문화전당서

톨스토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가 10일~1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무대에 오른다.

'안나 카레니나'는 사랑과 예술, 종교, 죽음 등 작가의 삶과 가치관을 쏟아 부어 완성한 이른바 '톨스토이 문학의 집대성'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방대한 서사와 삶의 총체적 모습을 완벽히 구현해 '역사적 시대에 예술적 공식을 이끌어 낸 작품'으로 불리며 후대 작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 왔다. 세밀하게 그려낸 캐릭터, 화려한 러시아 귀족 상류사회의 모습을 담은 작품은 문학 장르를 비롯한 영화·발레·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 장르로 재해석됐다.

전 세계 최초이자 한국 최초로 라이선스 공연되는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는 오리지널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참여해 역에 걸맞은 배우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주인공 '안나' 역에는 대한민국 뮤지컬계 최정상 여배우인 옥주현과 정선아가 이름을 올렸다.

극중 매력적인 외모의 전도유망한 젊은 장교로 안나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브론스키' 역에는 이지훈과 민우혁이 더블 캐스팅됐다.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는 영화 같은 강렬한 무대 연출과 19세기 러시아 귀족 향유 문화를 감각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화려한 의상 등 관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10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11일 오후 2시.

/정해은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